

종합토론 토론요지

* 시간관계상 모든 토론자의 원고를 신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1주제에 대한 토론 내용 요약]

심문보 (한서대학교 교수)

1. 충청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

1) 긍정적 효과

- 도청 이전으로 충남지역 東西 균형발전과 서해안 시대에 즈음한 환황해권(중국) 성장시대에 맞물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작용하는 계기
- 환 황해권 중심지로서 충남도의 위상강화, 도청소재지로서 지역의 정체성 제고, 지역 내 산업구조 다변화, 해양 및 문화 관광 사업 발전 등에 기여
- 경부축 중심의 성장주도시대에 낙후지역이었던 충서지역이 내포신도시 건설로 공주·부여의 백제문화권과 양립하는 홍성·예산의 내포문화권 부흥기 도래로 과거 행정중심지(홍주목)의 번영이 재연될 것임

2) 부정적 효과

- 내포신도시가 2020년까지 인구 10만명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내포신도시와 주변 시·군(당진, 서산, 태안, 청양, 아산 등) 구도심과 격차로 한정된 인구분포 대비 지역 간 이동, 신도시 중심으로 자본이 빨려드는 역류효과 때문에 내포 지역 전체에 악영향 우려됨
- 내포신도시가 장기적으로 자족기능을 확보하지 못하면, 내포신도시 관할인 홍성과 예산군에 부담만 가중되고 상대적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2. 태안군의 대응

1) 태안군의 입장

- 태안군은 충남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내포신도시와 세종시와의 연계 협력 발굴
 -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이전 태안군에 긍정적 효과 -> 접근성 향상,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 내포문화권 내의 타 시군과 협력 필요 특히 서산, 당진, 보령, 홍성, 예산
기름유출피해의 조기 매듭과 지역주민간의 공동체 회복 필요
 - 기름유출에 대한 주민피해 최소화, 공공기관이전에 따른 사회적 책임 부여
기업도시의 조기 가시화와 도심공동화 대책 수립 필요

2) 연계협력방안

- 내포 신도시내의 생활권이 같은 인접 시군간의 통합 검토
 - 장기적으로 서산·태안 또는 서산·태안·당진을 통합하는 방안 검토하고, 대비할 필요 있음
서산 또는 당진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통합적 지역발전 구상
 - 내포신도시가 광역행정기능을 수행하고, 인접 시군이 중추기능의 일부를 담당함으로써 상호의존적인 협력관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산시와 해상풍력 및 태양열, 첨단 바이오 단지 공동조성
- 항공해양 스포츠 메카 조성
 - 보령시와 협력하여 해양관광레저산업을 육성하고 한서대학교와는 항공해양스포츠 등과 연계된 레저산업을 육성
하도록 함
- 자원순환형 공동체 마을 조성사업
 - 한서대학교 및 국방과학연구소, 서부발전소 등과 같은 우수한 인재들이 태안군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공동체 마을
을 조성하여 분양하는 방안 검토

[제 2주제에 대한 토론 내용 요약]

신기원(신성대학교 교수)

1. 서부발전 및 엠게임 등이 이전함에 따라 새로운 정주환경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소가 필요한지 여부를 유입대상 주민, 태안주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정주환경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등 체계적인 접근과 설득력 있는 대안제시가 돋보임.
2. 현재 태안군의 정주환경 하에서의 거주방향과 향후 정주환경 개선 후 거주 방향을 묻은 결과 개선 후 거주하겠다는 응답자가 유입대상 주민의 경우 20% 증가하고 공무원(19.2%) 및 태안주민들(8%)도 증가하여 정주환경 개선이 정주성 증대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됨.
3. 도시생활환경 요소에 대한 중요도를 보면 평균적으로 안전성(17.4%), 교육성(16.3%), 보건성(15.9%)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유입대상 주민은 교육성(18.9%), 안전성(17.1%), 편의성(16.5%) 순으로, 태안주민들은 안전성(17.7%), 보건성(17.1%), 쾌적성(14.7) 순으로 공무원은 안전성(17.4), 교육성(16.3), 보건성(15.9) 순으로 나타나 약간의 차이가 발견됨. 다만 안전성에 대한 요소는 유입대상 주민, 태안주민, 공무원 모두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보건성은 태안주민과 공무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였는바,

3. 이와 연계하여 정주환경 구축방안에서도 이러한 요소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방안이 마련되었어야 함에도 제시되지 않음. 특히 안전성 요소 중에서는 '범죄 및 사고 안전성'의 경우 유입대상 주민이 전체 요소 중 가장 높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경찰서 및 소방서 등과의 협조 등을 통해 구성원들이 치안과 재해부문 등에서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보건성 중 '병원, 보건소 등 의료시설' 역시 공무원은 전체 요소 중 가장 높게, 유입대상 주민의 경우 2번째로 높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상설 의료체계 체계 및 응급구급체계구축에 힘쓰고 보건부문에 대한 예산을 확충하여 공공의료시설을 보완하여야 할 것임.
4. 건강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관련하여 갈등 발생시 토론과 협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제시하였는바 이를 구체적으로 제안하면 지난 2010년 11월 10일 '충청남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제3544호)'가 제정된 것을 시 발로 도내 시·군에서도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태안군의 경우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어 이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함. 해당 조례에 따르면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일반주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시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갈등발생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5. 이와 함께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위하여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해 지역중심의 경제문화공동체를 구축하여야 할 것임. 지역중심의 경제문화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공동체성이 반영된 문화를 구축하여야 할 것임. 즉, 지역고용 유발업종에 대한 유인책을 개발하고 지역공동체 내에서 완결구조를 갖는 경제영역을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지역공동체성의 변화를 유도하여야 할 것임. 지역에서의 자발적인 문화공동체 형성과 문화향유 기회의 확장은 일상의 삶을 풍부하게 하고 지역의 주체의식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임. 또한 사회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제도의 업그레이드와 시민교육을 통한 신뢰와 관용문화의 확장이 필요. 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시와 결산에 대한 모니터링제, 정책 자문단 및 정책 평가단 활동 등을 통해 정책과정 및 예산과정에 대한 온/오프라인에서의 시민참여가 지속화되고 확장되어야 하며, 주민간 교류 및 경험의 공유 그리고 지속적 교육 등을 통해 시민의식 제고에 노력.

[제 3주제에 대한 토론 내용 요약]

김나희(충남도립청양대학 교수)

1. 태안을 비롯한 충남 관광벨트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은 구체적인 해당 지역 수익형 관광개발사업이어야 한다.
2. 기름유출 사고 등으로 해양자원을 이용한 관광상품에 대한 불안감을 지닌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즐길거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업계획 및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3. 신두리 사구의 지속가능한 보존 및 활용방안: 조력발전소 구축 대 주민의 어업 생활터전 유지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생태보존 및 활용방안 계획은 다각적인 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서해안권 관광벨트조성사업에 있어 충남지역의 성공적 추진 및 운영을 위해선 각 지역별(안면-원산-대천) 뚜렷한 매력 포인트가 될 만한 문화관광적 핵심 주제가 필요하다. 즉, 관광개발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 방법이 아닌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 운영이 가능한 사업계획이 필요하다.

5. 태안의 관광벨트조성사업은 지역의 균형적 개발과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미 잘 알려진 관광지의 경우 (안면도, 만리포 등), 국제적 관광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현재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 개선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변화 및 대책수립 계획이 필요한 반면, 반대로 여전히 문화관광지로서 외면되거나 제대로 홍보가 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선 집중적 관광벨트 참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 후 태안군이 문화관광 거점지역으로서 균형적 발전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다.

6. 태안군의 성공적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선 태안군의 지역 요소별 software 적인 전략적 상품개발과 브랜드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연계상품으로 타 시·군과의 연계성도 좋지만, 그 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태안군 내 각 지역별/주제별 테마여행 상품으로 태안 군내 지역 간 연계 상품 및 체류상품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7. 서해안 관광벨트사업에 대한 계획 및 구상은 이미 2003년도부터 구상되어 2006년도부터는 연차별 예산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이다. 따라서 태안군 문화관광개발에 대한 본 사업계획은 '잠정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측면보다는 '즉각적 실행 가능한' 시행계획서가 쓰여 질 수 있는 사업계획이어야 할 것이다.

[한국서부발전 이전에 따른 대·내외적 여건 분석 및 정주여건 구축 방안]

최근병(한국서부발전 태안사옥건설팀장)

□ 이전에 따른 여건 분석

회사의 여건변화	
부정적변화	긍정적변화
○ 대외인지도 하락 (지방기업의 이미지) ○ 우수인적자원 확보 어려움 예상 (우수인재의 수도권 집중) ○ 대외활동기반의 약화 (유관기관들과의 협력관계 저하우려)	○ 기업이미지 쇄신 (독자적 회사 이미지 창출가능) ○ 태안군과의 동반성장, 지역경제발전 견인 (지역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 새로운 사업 환경의 도래 (글로벌기업으로의 도약, 발전관련 단지화)
직원의 여건변화	
부정적변화	긍정적변화
○ 자기개발을 위한 환경의 부재 (대학원, 학원, 최신정보취득) ○ 가족과의 유대관계 약화 (지방 단신부임의 가능성증대) ○ 생활환경 수준의 저하 (문화, 편의 시설의 열악)	○ 환경친화적 근무환경 (청정지역, 관광지역 태안) ○ 개인복지 지원에 대한 기대 (사옥 및 거주시설 지원) ○ 개인 여가 생활의 증대 (심신 단련 등 새로운 자기개발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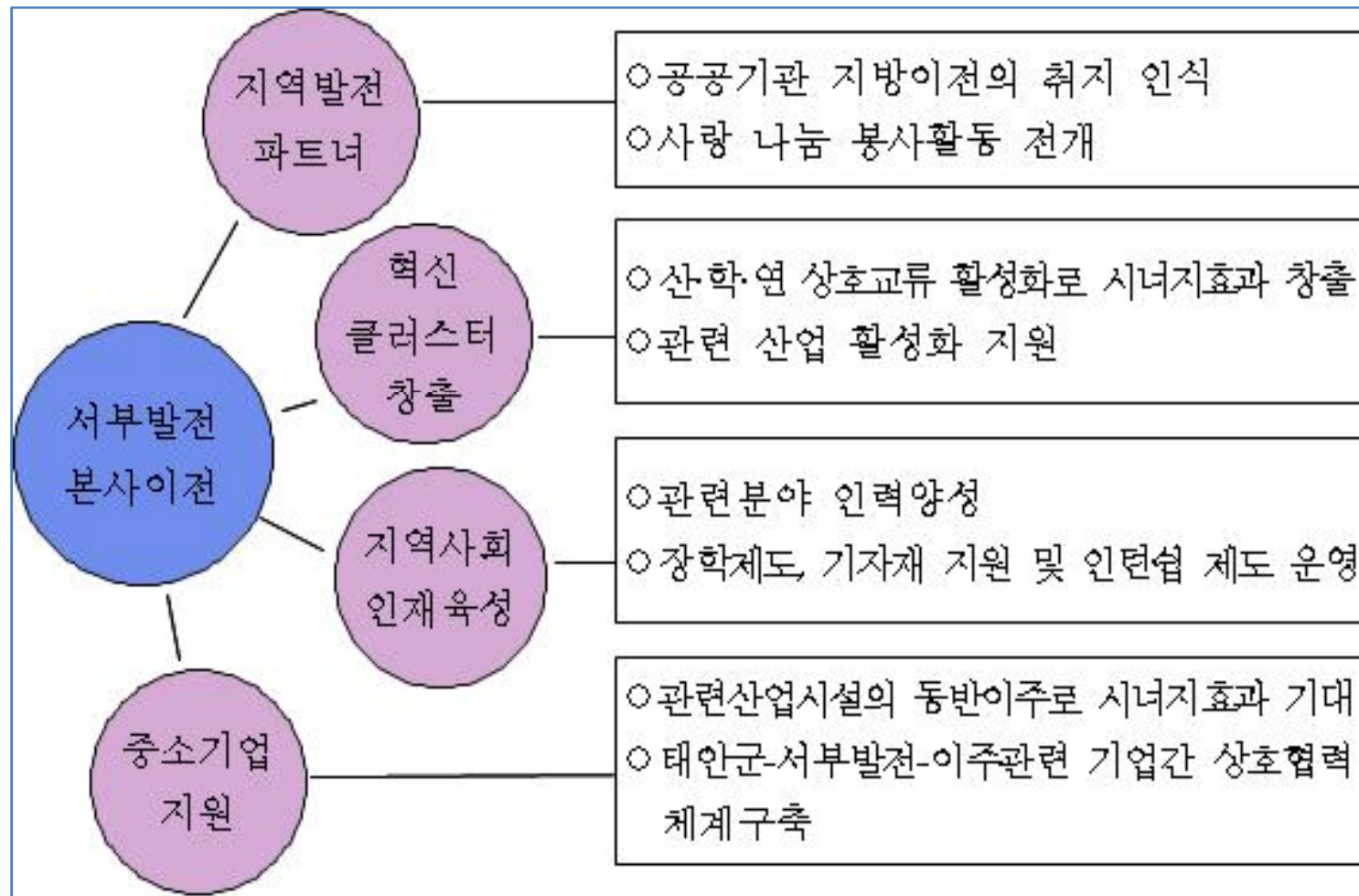
□ 서부발전본사 이전 효과

서부발전의 상징성	○ 최고의 에너지 전문회사로서의 새로운 브랜드밸류 및 공간창출 기회 ○ 발전산업 도시로서의 서부발전의 환경 구축 가능
최첨단의 업무환경	○ 최첨단의 미래지향적 업무환경(감성만족)을 통한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 구현 ○ 수도권과의 지리적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시설기반 구축 ○ 쾌적하고 여유있는 업무공간 구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
친환경적 공간설계	○ 최적의 설계를 위한 최신공법의 적용 ○ 친환경 에너지 절감 및 Intelligent Building 구현
커뮤니티 시설계획	○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 대외 홍보의 효과 상승 ○ 주변과 어울리는 저렴한 대지환경을 통한 다양한 옥내/옥외 시설구축이 가능 ○ 지역 및 직원가족과의 화합을 통한 지방친화, 생활, 문화, 편의 시설구축을 통한 정주환경 조성

□ 여건 변화에 따른 서부발전의 대응방향

물 리 적 환 경 의 구 축	○ 미래지향적 사무환경 구축 ○ 합리적인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공간 계획 ○ 창의적 외관과 랜드마크 계획	○ 다양한 사례 검토를 통한 필요 공간의 도입 ○ 각 공간의 분석과 그에 따른 필요면적의 도출 ○ 틀을 깨는 공간계획의 필요 (지역LandMark화)
이전직원 지원방안 모 색	○ 직원의 부정적여건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 ○ 주변환경과의 어울림	○ 근무환경개선/복지시설확충 및 정주환경개선을 통한 자긍심 고취 ○ 구성원 및 지역주민간의 유기적 소통을 고려한 계획
지역발전 기여방안 모 색	○ 이전 지역의 일원으로서의 서부발전의 이미지 구축 방안 ○ 지역과의 상생추구 방안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례의 조사를 통한 서부발전의 지역 기여방안을 모색하고 그 파급예상효과 극대화 -성과적책임/윤리적책임/자선적책임 ○ 태안지역 관광 명소 개발에 일익담당

□ 이전지역 발전 기여 방안 검토



● 이전 지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파트너의 역할

1) 지역의 특화발전과 자립형 지방화의 촉진이라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취지를 인식하고 지역 특화발전을 선도

2) 이전기업과 지역사회간 유대감 형성 프로그램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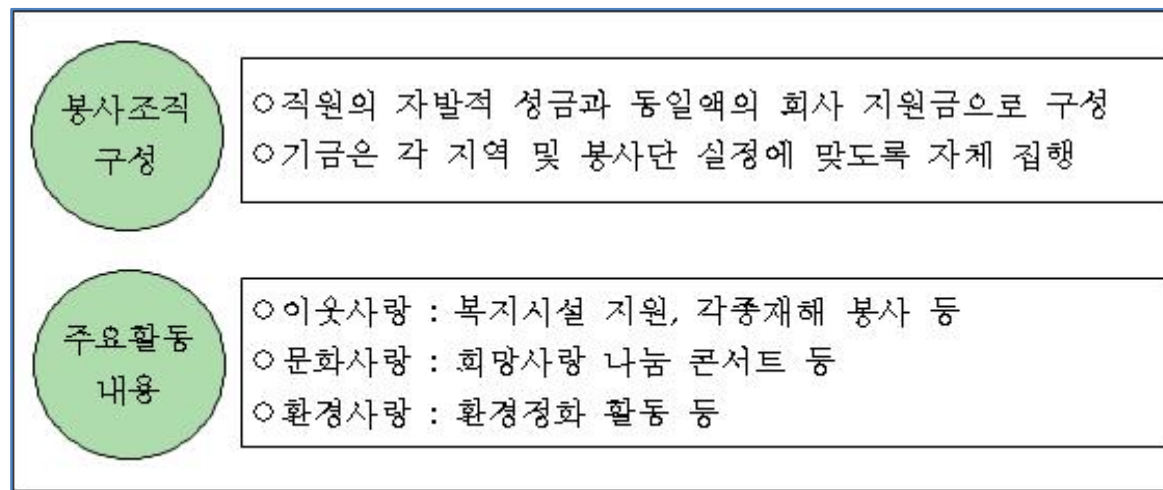
- 1사~1촌 자매결연 맺기 운동확산

- 미래의 살 고장에 대한 탐방체험 프로그램 정기운영 등으로 상호 교류 정례화

3)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을 체계화 하는 사회봉사단을 출범 등의 사랑 나눔 봉사활동 전개

-태안군 기름 유출과 같은 재해 발생 시 회사 내 봉사단체를 중심으로 봉사활동 추진,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와 서부발전의 대외 이미지 고취에 기여

4) 사내 봉사단체의 활동 중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으로
서부발전 기업이미지 형성과 지역사회의 신뢰 구축



5) 살고싶은 도시만들기를 위해 지역발전 사업 공동 추진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생태환경보존 운동 등을 통한 지역신뢰 구축방안 고려

6) 이전기업과 지역간의 협력사례가 제도화 되지 못하고 일회성 행사에 그쳐
신뢰형성이 미흡할 수 있으므로 전략적이며 장기적인 계획 고려

□ 이전에 따른 직·간접 파급효과

● 직접파급 예상효과(경제적 효과)

1) 서부발전의 이전은 태안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지방세수증가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2) 태안군의 경우 200명이상 고용기관이 3개 기관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규모가 작음. 서부발전 이전은 태안 경제규모의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판단되며 간접적으로 서비스 업종 등의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영향이 클것으로 판단

3) 기여금액

구 분	내 역	금 액	비 고
사 옥	점심식사	4.5억원/년	외부식당 이용
	소 계	4.5억원/년	
사 택	가족동반 생활비	100억원/년	480세대
	단신부임 생활비	24억원/년	150세대
	소 계	124억원/년	
공 통	저녁회식	12억원/년	
	소모품 구입비 등	5.7억원/년	
	지 방 세	5.3억원/년	취·등록세 31억 제외
	소 계	23억원/년	
합 계		140억원/년	
건설업체 종사원 경제유발효과		235억	연인원 47만기준

● 간접파급 예상효과

- 1) 서부발전과 지역의 대학, 연구소간의 협동 및 상호작용에 의해서 태안 및 충남권의 교육 및 연구기관의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
- 2) 장기적으로 태안지역에 대한 서부발전의 발전산업 클러스터화가 예상됨
- 3) 서부발전의 성공적인 이전으로 서부발전과 연관되어있는 민간업체의 이전을 촉진될 것으로 판단 지역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시너지효과로 지역의 특성화, 기술발전, 경제 활성화에 기여
- 4) 서부발전 사옥과 사택의 태안 입지는 단순한 업무 및 주거 시설의 이전이 아닌 태안에 정주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시설 확보
- 5) 다양한 산업적, 경제적 활동들은 단기적으로 태안 지역의 생활공간, 생활시설의 개선, 장기적으로 양질의 정주환경을 갖춘 도시환경을 형성
- 6) 다양한 기업활동을 통해 태안에서 서부발전의 위상과 기업 이미지를 창출

● 파급 예상효과 결론

구분	파급 예상 효과	비고
지역 경제 활성화	○ 인구의 증가 - 본사 및 후속기 건설·운영인원 및 협력업체 등 ○ 세수의 확대 - 소비지출 및 지방세 납부를 통한 경제 활성화 (매년 재산세 등 5.3억 세수 예상) (사옥:4.5억원/년, 사택:124억원/년 - 공통비용 제외) ○ 사옥·사택 신축에 따른 고용창출효과 (연인원 약 47만명)	직접 파급
다양한 기업 활동	○ 사옥·사택에 사회적, 문화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 태안지역에 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주민과 공동사용 추진 ○ 기업의 책임실현을 통한 장기적인 기여	간접 파급
Win-Win 전략	○ 혁신적인 사옥의 건설 ○ 직원을 위한 쾌적한 정주환경 및 복지시설 구축 ○ 태안지역 발전을 위한 기업 활동 ○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의 폭넓은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진행	

□ 지역과 함께하는 태안지역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구축

● 지역주민의 향상된 문화·체육활동 영위 염원 실현에 적극적 역할

● 태안 유일의 공기업으로서 지역과의 공동성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이행

- 본사이전을 위한 상생협력 공동선언('10.10.13, 태안군↔서부발전)

-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11.08.22, 태안군↔서부발전)

● 주민이용시설확대(부지이용 극대화를 통한 문화·복지시설 규모 확대)

구 분	주요시설	당초()	변경()	비 고
1	문화시설 (소공연장)	-	1,100	200석
2	실내체육관	-	2,300	245석
3	주민운동시설	375	4,000	규모확장

- 영화상영(월1회), 연극·음악회·초청강연(분기1회) 등 공연장 운영

- 주민 생활체육시설(배구, 배드민턴, 탁구 등) 개방 및 자치운영

- 지역 학생들을 위한 문고 및 독서실 개방

● 열린문화·체육공간 제공으로 주민의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 제공

- 충남도민체전 유치 시 활용가능한 국제규격 테니스코트 조성 및 주민이용

- 건폐율 축소를 통한 옥외공간확보로 주민 체육 및 산책로 제공

(산책로, 운동기구, 야외공원, 자전거 순환로 등)

- 문화·체육시설 이용 주민을 위한 별도 지상주차장 확보

※ 주민개방시설 협의운영을 위한 태안군↔서부발전 간 협약추진예정

● 사택 및 사옥단지 주민개방 주요 문화·체육시설

시설용도		규 모	면적(㎡)	비 고
문화시설	소공연장	200석	1,045	
	동아리실	2실	40	
체육관	골프연습장	20타석, 스크린 2개소	551	
	체력단련실	1	237	
	GX룸	1	126	
	탁구장	3대	94	
	농구장(배구)	1	881	
	당구장	2대	35	
옥외 체육시설	테니스장	3면, 국제규격	2,004	
	풋살경기장	1면, 국제규격	1,219	
	인라인스케이트장	4m(폭)×216m(길이)	864	
	체력단련장	1	560	
	축구장(천연잔디)	국제공인규격	10,800	족구장, 농구장, 사옥
집회시설	컨벤션센터		725	국제회의장 시설, 사옥
	대강당(결혼식장)	450석 규모	898	사옥

□ 정주환경 구축을 위한 제언

● 전략적인 공익 마케팅·사업 기획

-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을 「사회적투자」로 인식하여 장기적 이윤목표 도모 (SPC법인 설립·운영으로 지역주민참여 유도 등)
- 판매시설, 특히 재래시장 정비 사업 추진
- 이전기업-중소기업간 상호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방안 모색

●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분야 환경개선

- 초·중학교 체계적 육성방안 모색 ▶ 장기적으로는 명문 고등학교 육성
- 영·유아 보육지원방안 확보 : 기존 여성직원의 보육시설·탁아시설 지원
- 국내 우수사례조사 및 지자체와 공동 벤치마킹 추진
- 체계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 플랜 (교육분야 용역 발주중 : 태안군-서부 공동)
- 사교육 클러스터(학원, 기숙형 입시전문학원) 조성방안 수립

● 의료시스템 보완

- 태안읍내 산재된 분야별 개인병원들을 동일건물(구역)에 모여 운영토록 유도 → One-Stop 의료서비스 체제구축효과 (병원, 주민 상호만족)
- 응급환자 후송체계 마련(종합병원 연계)

● 지역사회공헌활동 적극추진

- 이전기관의 봉사조직 활성화 및 지역특생의 맞춤형 사회활동전개
- 1사 1촌 돕기사업 확대 및 1사/1산/1하천 가꾸기 운동
- 전문 공연장 운영으로 지역민 문화욕구 충족(음악회, 연극, 전시회 등)
- 재해 복구 지원 및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봉사동아리 운영

● 기타 도시 인프라 개선

- 불량한 도로 정비 및 가로 정비 사업(주택 및 상가) 추진
- 공동주택(아파트, 민간등) 신축시 지자체내에 도시미관을 위한 공동주택 신축 디자인 개선(Guide Line 제정)
- 태안관광명소 육성을 위한 태안읍내 공원 조성확대 및 야간 도로 가로등 확충
- 지방도 확포장(태안읍-원북 이원간 도로)